

〈제 764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6천억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동성 부족으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천억원을 긴급 편성해 오는 2월 29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연계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J카드, 대형마트 설날 선물세트 할인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KJ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광주은행 KJ카드와 함께하는 설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의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광주은행 KJ카드로 설날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40% 할인 또는 금액대별 5% 상품권을 증정한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고유 명절 설날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의 알뜰한 소비를 위해 준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고객님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8년째 '사랑의 S-BOX' 후원



(주)광주신세계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7년 시작한 '사랑의 S-BOX' 후원을 올해까지 8년째 진행한다.

'사랑의 S-BOX'는 지역 상생을 위해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광주신세계가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서구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시작했고, 광주신세계를 중심으로 광주시

교육청과 서구청, 서구지역 5개 복지관이 협력해 진행 중이다.

김성준 광주신세계 스토어전략팀장은 "광주신세계가 시행 중인 '사랑의 S-BOX'와 '희망장학금'의 목표는 지역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행복 증진에 있다"면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가도록 광주신세계가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작년 최고 실적 올해 공격 투자로 기세 이어간다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진을 딛고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호실적을 이어간 금호타이어는 올해 본격적으로 베트남 공장을 가동해 기존 생산량 590만개에서 1250만개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상용차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한 모빌리티 기술을 이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타이어 센서 개발 등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글로벌

◆이정권 대표,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



디에이치 글로벌 이정권 대표가 부안군에 500만 원을 기탁하며 2년 연속 제1호 고향사랑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부안군 상서면 출신인 이정권 대표는 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며 평소 부안 군정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16년부터 근농 장학 재단에 2016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예외 없이 2024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정권 대표는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환경을 위해 ‘지구방위대’가 되겠다는 부안군이 내 고향이어서 행복하고 고향에 기부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자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했다.

보해양조

◆목포서 다큐 '길위에 김대중' 홍보



보해양조는(대표 임지선)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보해는 '잎새주' 제품 뒤 라벨에 영화 포스터를 담은 제품을 생산해 목포 지역에 공급하며 영화 개봉 소식을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지역 출신 인물의 일대기가 담긴 영화를 협찬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더 가까워지고 소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병원

◆연간 고난이도 심장수술 400례 달성



전남대학교병원(원장 안영근)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심장이식, 관상동맥우회술 등 고난이도 심장수술 400례를 달성했다.

2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지난해 관상동맥우회술 158건과 판막수술 123건, 대동맥수술 59건, 심장이식 14건 등 심장수술 403례를 시행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중심장기를 진료하는 필수 의료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사명감과 병원의 지원으로 지난 10년 간 심장 수술 치료 성공률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 도입과 혁신을 시도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간 고난이도 심장수술 400례 달성



전남대학교병원(원장 안영근)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의료기관 중 2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2020년 안영근 병원장이 취임 후 반부패·청렴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관리 했다.

안 병원장은 "지역민,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패 방지·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올해도 청렴한 전남대병원으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한전KPS·한수원·한전기술, '원전 작업종사자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사장 김홍연)은 한수원, 한전기술과 '원전 작업종사자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방사선으로부터 원전 작업종사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공유는 물론, 전문기술 개발과 종사자들의 안전 관련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협력기로 했다.

한전KDN

◆노사 합동 반부패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24일 전남 나주 본사 빚가람홀에서 “노사합동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가져야 할 청렴 의식 함양과 반부패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행된 결의대회에서 김장현 사장과 박종섭 노조위원장

노사 간 솔선수범 의지를 함께 표명하였다.

김장현 한전KDN 대표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와 전 임직원의 실천 의지는 공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부패 청렴의 실천에는 노사가 따로일 수 있기에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하였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36회 금요조찬포럼〉

K-콘텐츠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

(조현래 원장)

1636회 금요조찬포럼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을 초청하여 「K-콘텐츠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한국 콘텐츠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가 만든 K-콘텐츠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세계인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명작가 지망생이 성공한 크리에이터로 우뚝 서고 우리의 상상력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수출액이 가전, 디스플레이, 전기차 수출액을 넘었을 뿐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등 소비재 수출을 이끌면서 대한민국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뉴욕타임스에서 BTS, 오징어게임 등 콘텐츠를 개발한 한국을 보고 어떻게 한국은 문화적 괴물이 되었는가로 보도합니다. 한국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국가도 과거에는 동남아에서 남미, 북유럽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주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관련 업종의 소비재, 내구재 판매량도 증가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생충의 짜파구리로 인해 관련 매출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하면 관련돼 있는 뷰티, 소비재 수출이 2.8억 달러 증가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숫자가 증가합니다. 중국에서 아직 한국에 단체 관광을 안 풀어주고 있는데도 개별관광객 숫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됐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를 보고 온 관광객은 서울 중심의 관광이 아닌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 가수를 찾아오기 때문에 지방 관광지도 많이 찾아옵니다. BTS가 촬영한 전라북도를 팬들이 찾아오면서 BTS로드가 생겼습니다.

콘텐츠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 1년에 140여 편의 드라마가 제작되는데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10편이 채 안 됩니다. 미술관, 뮤지엄에 대한 소비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은 1만 5천원의 표값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비슷한 콘텐츠를 6~7만원의 가격을 책정하고도 한국보다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산업 수출에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고 지속할 수 있도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1.21)

○ 1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18년 대비 '22년 우리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Delta 25.5\%$)해 경쟁국들과 순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남.

*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6대 산업')은 정부가 '23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언급된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이차전지, ④미래차, ⑤바이오, ⑥로봇을 의미

※ 수출시장 점유율이란 특정 국가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 동 보고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

① (6대 산업 수출액과 비중 감소) '22년 우리 6대 산업 수출액은 총 1,860억 달러로 '18년 (1,884억 달러) 대비 1.2% 감소. 우리 전산업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1.1%('18년)에서 27.2%('22년)로 하락.

※ '22년 우리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7.2%)은 주요 6개국 중 대만(48.1%) 다음으로 높아 6대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② (우리나라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크게 하락) '18년 대비 '22년 우리 6대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4%에서 6.5%로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2년 우리 6대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6.5%)은 중국(14.1%), 독일(8.3%), 대만(8.1%), 미국(7.6%)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

③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디스플레이는 상승) 우리 6대 산업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는 '18년 대비 '22년 수출시장 점유율이 13.0%에서 9.4%로 32.5% 하락한 것으로 집계. 동 기간 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은 9.9%에서 10.3%로 4.8% 상승.

-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현황 국제비교) 우리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은 '18년 13.0%에서 '22년 9.4%로 하락($\Delta 32.5\%$)한 반면, 대만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동기간 11.2%에서 15.4%로 크게 상승(+32.2%)하며 우리와 대만 간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가 역전*.

Ⅲ. 노동경제동향

* '18년 → '22년 우리나라와 대만의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6개국 중 순위) 비교 :
[한국] 13.0%('18년, 2위)→ 9.4%('22년, 3위) [대만] 11.2%('18년, 3위)→ 15.4%('22년, 2위)

- (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 현황 국제비교) '22년 우리 디스플레이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10.3%로 6개국 중 중국(24.5%) 다음으로 높았음. 우리 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은 '18년 9.9%에서 '22년 10.3%로 상승(+4.8%)했으나, 독일(+36.5%), 대만(+29.0%), 미국(+25.9%)에 비해 상승률이 낮게 나타남*.

* '18→ '22년 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의 변화율 : 독일(+36.5%) > 대만(+29.0%) > 미국(+25.9%) > 한국(+4.8%) > 일본(△7.3%) > 중국(△21.2%) 順

◆ 기획재정부, 현장 방문 플랫폼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신설 (1.4~)

○ 기획재정부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4일 기재부 홈페이지에 현장 방문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를 신설하여 운영 중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25)

○ 2023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4% 증가

※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2023년 11월 전망치(1.4%)에 부합

※ 최근 5년('19~'23)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19~'21 확정치, '22 잠정치, '23 속보치)
: 2.2%('19)→ △0.7%('20)→ 4.3%('21)→ 2.6%('22)→ 1.4%('23)

- 지출항목별로 건설투자(1.4%)와 설비투자(0.5%)가 증가 전환하였으나, 민간소비(1.8%)*, 정부소비(1.3%)**, 수출(2.8%) 및 수입(3.0%)은 증가 폭이 축소

※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22 잠정치, '23 속보치)

: [민간소비] 4.1%('22)→ 1.8%('23) [정부소비] 4.0%('22)→ 1.3%('23)

[건설투자] △2.8%('22)→ 1.4%('23)[설비투자] △0.9%('22)→ 0.5%('23)

[수출] 3.4%('22)→ 2.8%('23) [수입] 3.5%('22)→ 3.0%('23)

* '23년 민간소비(1.8%)는 '13년(1.7%)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

** '23년 정부소비(1.3%)는 '00년(0.7%)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

- 지출주체별 성장기여도는 민간 0.9%p, 정부 0.4%p로 나타남.

○ 2023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전년동기대비 2.2% 증가)

Ⅲ. 노동경제동향

- 지출항목별로 민간소비(0.2%), 정부소비(0.4%), 설비투자(3.0%)*와 수출(2.6%)이 모두 전기대비 증가했으나, 건설투자(4.2%)**는 전기대비 감소

* '23년 4분기 설비투자(3.0%)는 '22년 3분기(7.0%) 이후 1년 1개 분기 만에 최대 증가 폭 기록

** '23년 4분기 건설투자(△4.2%)는 '12년 1분기(△4.3%) 이후 11년 3개 분기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1.24)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4일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
-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수출 목표를 7,010억달러 (전년대비 10.8% 증가)로 설정하고 10대 세계시장별 수출목표 및 진출 전략을 수립

구분	시장	2024년수출목표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주력시장	북미	1,387억달러 (10.7% 증가)	공급망 재편의 핵심파트너 위치 선점 *품목 :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첨단산업 등
	중국	1,878억달러 (10.3% 증가)	산업수요 세분화, 新소비 트렌드 공략 *품목 : 조선 기자재, 간편식품, 의료용 기기 등
	아세안	1,540억달러 (12.8% 증가)	역내 밸류체인(RVC) 진입, 한류 영향력 활용 *품목 : 간편식품, 전기차·충전시설, 태양광패널, ESS 등
전략시장	EU	850억달러 (11.0% 증가)	공급망 재편, 탄소 중립 기회 선점, 방산수요 공략 *품목 :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중동	300억달러 (7.9% 증가)	경제협력 확대 연계 수출·수주 지원 강화 *품목 : 수소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산업, 재난복구 인프라
	일본	310억달러 (6.9% 증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신규 투자 확대 활용 *품목 : 스마트팩토리, 전기차·전장부품, 재생에너지
	서남아	235억달러 (13.0% 증가)	글로벌 투자 확대, 중산층 수요 증가 *품목 : 일반기계, 화장품·식품, 전기차 부품
신흥시장	중남미	264억달러 (10.9% 증가)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진출 확대 *품목 :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제약
	CIS	145억달러 (9.0% 증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공급망 재편 대응 *품목 : 자동차 부품, 스마트팜, 드론, 신재생에너지
	아프리카	101억달러 (11.0% 증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거래선 집중 발굴 *품목 : 의료기기·의약품, 자동차·중고차, 에너지기자재

Ⅲ. 노동경제동향

◆ 한국은행, 「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1.23)

○ 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Delta 0.4\%$) 등이 내렸으나 농림수산물(4.9%), 서비스(0.2%)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월비) : $0.9(23.8) \rightarrow 0.5(9) \rightarrow \Delta 0.1(10) \rightarrow \Delta 0.4(11) \rightarrow 0.1(12)$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0(23.8) \rightarrow 1.4(9) \rightarrow 0.7(10) \rightarrow 0.6(11) \rightarrow 1.2(12)$

- **(농림수산물)** 축산물($\Delta 2.7\%$)이 내렸으나 농산물(9.3%), 수산물(4.6%)이 올라 전월대비 4.9% 상승(전년동월대비 6.4% 상승)- **(공산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2%) 등이 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Delta 3.7\%$), 화학제품($\Delta 0.7\%$) 등이 내려 전월대비 0.4% 하락(전년동월대비 0.4% 하락)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산업용도시가스(6.7%) 등이 올라 전월대비 1.0% 상승(전년 동월대비 4.6% 상승)

-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 금융 및 보험서비스(0.8%)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2023년 연간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Delta 0.9\%$)이 하락했으나,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16.1%), 서비스(2.5%), 농림수산물(2.9%)이 올라 전년대비 1.6% 상승

○ 2023년 12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전년동월대비 0.1% 하락), 총 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0.4% 상승)

*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2023년 연간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7% 하락, 2023년 총산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6% 하락

Ⅲ. 노동경제동향

◆ 한국은행, 「2024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1.25)

- 2024년 1월 업황BSI는 69*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나, 2024년 2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대비 1p 상승

* 업황BSI 추이 : 73('23.9)→ 70(10)→ 70(11)→ 70(12)→ 69('24.1)

- (제조업) 2024년 1월 업황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하였으며, 2024년 2월 업황전망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68('23.9)→ 69(10)→ 70(11)→ 70(12)→ 71('24.1)

- (비제조업) 2024년 1월 업황BSI는 67*로 전월에 비해 3p 하락하였으나, 2024년 2월 업황전망BSI는 68로 전월과 동일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77('23.9)→ 71(10)→ 69(11)→ 70(12)→ 67('24.1)

◆ 한국은행, 「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24)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월중 101.6으로 전월(99.7)대비 1.9p 상승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99.8('23.9)→ 98.2(10)→ 97.3(11)→ 99.7(12)→ 101.6('24.1)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89)는 전월대비 1p 상승, 향후경기전망CSI(81)는 전월대비 4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143)는 전월대비 3p 하락, 임금수준전망CSI(117)는 전월대비 1p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 3.0%로 전월대비 0.2%p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3.3('23.9)→ 3.4(10)→ 3.4(11)→ 3.2(12)→ 3.0('24.1)

Ⅲ. 노동경제동향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5.3%), 농축수산물(45.9%), 개인서비스(24.6%) 등 順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은 1월 3.8%로 전월대비 0.1%p 하락
- ※ 물가인식 추이(%) : 4.1('23.9)→ 4.1(10)→ 4.1(11)→ 3.9(12)→ 3.8('24.1)

2. 노사 동향

◆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 고용부는 1. 22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기존 행정해석 변경

※ 대법원은 지난 12. 7 1주간 12시간의 연장 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를 합산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40+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며,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고 발표

[참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고용부 행정해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연장근로 한도 위반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연장근로 수당 지급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또한, 고용부가 금번 행정해석 변경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입장을 재차 피력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관련 이견 표출

-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사 모두 이견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Ⅲ. 노동경제동향

- 반면, 한국노총은 금번 행정해석 변경에 대해 연장근로 몰아쓰기 등 장시간 근로가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일 근로시간 상한,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권 도입의 법제화 요구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1. 25 국회 본회의에 미상정
 - ※ 중대재해처벌법은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예정
 - ※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전제로 ① 법률 확대 적용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 ② 유예기간 동안 안전확보 계획 제시, ③ 2년 유예 이후 법률을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 등의 약속, ④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제시해왔음.
-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의 현실화 우려
 - ※ 경총이 지난해 12. 10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완료 되지 않았다'고 답변

◆ 고용부는「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발표

-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13.1%로 전년대비 1.1%p 감소했고, 조합원 수는 약 272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21만명 감소
 - ※ 2021년 노조 조직률 : 14.2% / 2021년 노조 조합원 수 : 약 293만
-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한 오류 수정, ② 건설부문에서의 조합원 감소(약 14만명)로 판단
 - 고용부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실체가 없는 노조도 목록에서 삭제
- 한편, 양 노총 조합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노조 조직률은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남.

Ⅲ. 노동경제동향

- 특히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된 2017~2019년에집중적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공공기관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진행

※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 : 63.2%(2017)→68.4%(2018)→70.5%(2019)

- 최근에도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조가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도로교통공단의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 노조는 ▲대표이사 퇴진, ▲식대 인상, ▲복리후생비 신설 등을 요구하며 지난 1. 10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
- 도로교통안전관리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 난항 지속

[참고]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 112만1천명(전년대비 11만6천명 감소) • 민주노총 : 109만9천명(전년대비 11만2천명 감소) •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 48만2천명(전년대비 5천5백명 증가)
부문별 노조 조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 10.1%(전년대비 1.1%p 감소) • 공공부문 : 70%(전년과 동일)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300명 이상 : 36.9%(전년대비 9.4%p 감소) • 근로자 수 100~299명 : 5.7%(전년대비 4.7%p 감소) • 근로자 수 30~99명 : 1.3%(전년대비 0.3%p 감소) • 근로자 수 30명 미만 : 0.1%(전년대비 0.1%p 감소)